

책 읽는 즐거움 가득... 전주독서대전 개최

4일부터 6일까지 전주한벽문화관 일원서

은희경 작가 등 작가와의 만남 '풍성'

독서체험·책들의 향연 북마켓 등 운영

전주시는 오는 10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전주한벽문화관과 완관본문화관, 향교 등 전주한옥마을 일원에서 '낭신을 쓰세요'를 주제로 한 '2019 전주독서대전'을 개최한다.

4일 개막식에서는 '책으로 떠나는 시간여행'을 주제로 조선말 전기수(조선 후기 소설을 전문적으로 읽어 주던 낭독가)와 현대판 전기수인 북튜버의 입심 대결이 펼쳐지고, 판소리와 랩, 흥겨운 연주로 독서대전의 시작을 알린다.

이번 독서대전에서 놓치면 후회할 주요 작가들은 은희경 작가와 △의계 시선으로 글 쓰는 천문호자 이명현 △요즘 가장 뜨거운 '연재 노동자' 이슬아 △노래하는 시인 김창완 △오은의 초대사, 김소연 시인 △전주 올해의 책 작가 허은미·정은·이진순 △아름다운 사람 박남준 시인 △로맨스 소설의 절대강자 우지혜 작가 등이다.

특히 시는 올해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해 한벽문화관 놀이마당에서 전주의 자긍심과 자존감을 드높인 아름다운 문인들의 활약상을 소개하는 △일제강점기 전주(전북) 문인의 빛나는 행적 △전북 연극의 흥취를 이끈 박동화 작가의 삶과 작품세계를 엿볼 수 있는 '전주 작곡가 극작가 박동화'를 기획전시로 선보인다.

뿐만 아니라 완관본문화관 전시실에는 목활자, 원문, 현대어 번역, 판각 작품 등 다양한 형태의 전시물을 통해 사랑과 이별을 담은 △춘향, 네가 모두 사랑이로구나 열여춘향수절가 △2019 전주 올해의 책 필사노트 행사장인 한벽문화관 일원에서는 △전주를 노래한 시 '전북문인협회 시화전' △J-스토리랩 전주 창작동화(그림책) △생태 나무전 김선남 '은행나무' 원화 △도서관 연중 프로그램

이 운영하는 헌 책 경매가 눈여겨 볼만하고, 진북꽃길 작은도서관과 시민대학 도시농부의 텃밭에서 업사이클링을 배운 시민들이 일회용 컵을 이용하여 새끼 기르기를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체험행사도 운영한다. 이밖에도 공립작은도서관 운영협의회, 팝아트, 시민대학 인형극반, 3.1운동 공약상장 족자에 써보기 등 다채로운 체험을 해볼 수 있다.

향교에서는 청소년들이 편안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보드게임, 타악놀이, 캐리커처 자서전 만들기, 포토북 만들기, 라디오 체험 등 흥미로운 체



지난해 열린 전주독서대전.

램 작품 '낭신을 쓰세요' △시민공모전 '책 읽고 쓰는 우리, 독서 사진' △2018년 출간, 전주 도서 등 시민들의 손길로 완성된 시민 참여형 전시들이 관람객을 맞이하게 된다.

이와 함께 올해 독서대전에서는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모든 연령대의 가족이 함께 참여해 즐길 수 있는 △가족 독서골든벨 △속속 보물찾기 △독서대전 讚(독)한 투어 △전기수 이야기 △스탬프 투어 등이 새롭게 선보일 예정이다.

여기에 특별히 추억의 한책방을 소환한 △한 책방 주인장이 추천하는 헌 책 플라머 △별책방 '정년들

이 운영하는 헌 책 경매가 눈여겨 볼만하고, 진북꽃길 작은도서관과 시민대학 도시농부의 텃밭에서 업사이클링을 배운 시민들이 일회용 컵을 이용하여 새끼 기르기를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체험행사도 운영한다. 이밖에도 공립작은도서관 운영협의회, 팝아트, 시민대학 인형극반, 3.1운동 공약상장 족자에 써보기 등 다채로운 체험을 해볼 수 있다.

향교에서는 청소년들이 편안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보드게임, 타악놀이, 캐리커처 자서전 만들기, 포토북 만들기, 라디오 체험 등 흥미로운 체

험행사를 즐길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이외에도 올해 독서대전에서는 △작은도서관 운영자 역량강화를 위한 전국작은도서관 아카데미 △올해 첫 선을 보이는 '100인 100책 독서토론' △중학생 이상 청소년들의 자유로운 토론 '청소년 비경쟁 독서토론' △전주시 우수 독서동아리를 소개하는 '독서동아리 한마당' △어린이를 위한 '효녀 삼청' 한지인형극 △한옥마을 전통 연희 페어리드 △즐거움 버스킹 공연 △명작의 재발견 '북클래식 콘서트' △시낭송과 함께 하는 마무리 폐막공연 등이 펼쳐질 예정이다.

이에 대해 최현창 전주시 기획조정국장은 "신선한 가을바람이 불어오는 10월을 맞아 많은 시민들께서 전주독서대전과 함께 낭만적인 책 읽기와 쓰기의 즐거움에 흠뻑 빠져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독서대전의 주요 프로그램과 일정 등은 '2019 전주독서대전' 공식 홈페이지(www.jbook.kr)를 통해 확인하거나 전주시 완산도서관 책읽는도시팀(063-230-1871)으로 문의하면 된다.

/송효철 기자

반려견 광견병

예방접종 지원

전주시, 이달 한달동안

전주시가 인수공통전염병인 광견병 예방을 위해 반려견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시는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전주시역 4개 지정동물병원에서 동물등록 된 3개월령 이상의 개를 대상으로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지난 30일 밝혔다.

이 기간 동안 접종을 실시하면 평소 2만원 정도 지불해야하는 광견병 예방접종을 5000원 정도의 접종시술비만 지불하고 접종할 수 있다.

시는 이번 예방접종 기간 총 2500마리의 반려견에 대한 광견병 예방접종을 계획하고 있다.

앞서 시는 지난 4월에도 총 1700마리의 개에 대한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악취가 조기 품질될 수 있는 만큼 서둘러 접종을 실시하고, 예방접종 대상은 동물등록제 의무 등록 대상이기도 한 만큼 예방접종 기간을 이용해 반드시 등록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광견병 예방접종이 가능한 동물병원은 전주시 홈페이지(www.jonju.go.kr)를 통해 확인하거나, 전주시 동물복지과(063-281-5079)로 문의하면 된다.

/송효철 기자

전주 야호 부모학교 개최

전주시는 지난 21일과 28일 이틀간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예비부부를 대상으로 2주간의 맞춤형 소규모 부모교육인 '제4기 사립의 도시, 전주 야호 부모학교'를 개최했다.

'행복한 결혼생활을 위한 내비게이션'을 주제로 진행된 이날 교육에서 연인과 같이 참여한 예비부부들은 가족교육 전문가인 황미진 박사가 들려주는 현실부부 이야기에 웃고 공감하며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먼저 지난 21일 1주차 교육에서는 나를 돌보고 상대방을 이해하는 데 초점을 맞춰 진행됐다. 참여한 예비부부들은 이 교육을 통해 결혼생활을 하면서 겪게 되는 갈등의 유형과 효율적인 의사소통방식에 대해 배웠다.

이어 2주차 교육에서는 '부모'의 역할에 대해 초점을 맞춰 임신과 출산 과정, 부모역할과 자녀의 의미 등 자녀로 인해 같이 성장해가는 부모의 모습을 함께 그려보는 시간으로 꾸며졌다.

교육에 참가한 한 예비부부는 "교육이라고 해서 딱딱할 줄 알았는데 강사님이 재미있고 알기 쉽게 풀어 주어서 시간가는 줄 몰랐다"면서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현실적인 결혼 체크리스트 및 부부 갈등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좋았고, 상대방우자와 이런 교육을 함께 공유할 수 있어 더더욱 좋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송효철 기자

IWPG 전북지부, 열린통일강좌

'제5회 열린통일강좌'가 최근 전주 시청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선진통일건국연합 전북도지부와 시사오늘이 공동주최하고 세계평화공원추진 국민연합과 세계여성평화그룹 전북지부(IWPG, 지부장 여미현)가 공동주관했다.

IWPG는 유엔경제사회이사회와 유엔글로벌소통국에 등록된 세계적인 여성 NGO로서 평화 국제법 지지와 촉구 활동, 여성평화교육, 전 세계 여성 평화 네트워크, 평화 문화 전파 사업 등을 진행하는 여성단체다.

강좌에서는 세계북한연구센터 안찬일 소장이 '2019년 김정은 체제와 평화통일의 길'이라는 주제로 김정은 체제 이후 북한의 변화상황을 다양하게 여러 증거를 가지고 풀어냈다.

안찬일 소장은 "북한과 김정은 정권은 달라지고 노력하고 있다. 신년사 스타일부터 판문점 군인들 복장까지 대한민국을 모델로 따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전주시는 지난 30일 시청실에서 '2019년 3/4분기 택시 운수종사자 표창' 시상식을 개최하고 친절기사로 선정된 21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친절서비스 극대화... 3분기 택시 친절기사 선정

전주시, 21명에게 시장 표창

전주시가 친절기사 표창으로 택시 친절서비스를 높여나가고 있다. 시는 지난 30일 시청실에서 '2019년 3/4분기 택시 운수종사자 표창' 시상식을 개최하고 개인택시 운수종사자인 김진철 씨 등 친절기사로 선정된 21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택시 친절기사 표창은 택시운수종사자들의 자발적인 친절 서비스 정착과 모범 운수종사자로서의 자긍심 고취 등을 통해 택시 친절서비스를 높이기 위해 지난 2016년부터 매년 기별로 실시되고 있다.

이날 표창을 받은 택시 친절기사들은 전주시 개인택시운수종사자들로

차량 내 청결유지와 승객에 대한 친절한 응대는 물론, 승객이 두고 내린 분실물을 찾아주고 각종 교통캠페인에 참여하는 등 폭넓게 있는 전주시민이 정착을 위해 앞장선 모범 운수종사자들이다.

대표적으로 양승철 기사와 이병철 기사의 경우, 평소 차량 내 청결유지와 친절한 승객응대에 힘썼으며, 전주를 찾는 관광객에게 관광명소와 맛집을 안내하는 등 적극적으로 친절한 관광안내로 관광객도 전주 이미지에 향상을 보여 친절기사로 선정됐다.

시는 시민제보와 택시조합 추천 등을 종합한 후 승객 응대태도 △운전태도 △복장상태 △교통약자 배려

△안전운행 등을 평가해 택시 친절기사를 선정하고 있다.

친절기사 추천은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이면 누구나 천년전주 콜센터(063-222-1000) 또는 120 생활민원 전화, 전주시 시민교통과, 일반택시 회사, 전주시 홈페이지(www.jeonju.go.kr) 등을 통해 친절사례 등을 제보할 수 있다.

이강준 시민교통과장은 "장시간 운전으로 몸과 마음이 지친상황에서도 교통약자를 위한 배려에 솔선수범하며 선진교통문화 정착에 앞장서는 친절기사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면서 "택시업계 전반에 친절문화가 확산되도록 앞으로도 솔선수범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송효철 기자

전북대병원, 행동발달증진센터 직원 채용 실시

행동치료사 3명·진료코디네이터 1명 채용 예정

전북지역 발달장애인 거점병원인 전북대학교병원인 오는 7일 오후 6시까지 행동발달증진센터 조기 개원을 위한 직원 채용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전북대학교병원은 현재 분관 9층에 행동발달증진센터를 조성하고 있으며, 직원채용분야는 이곳에서 함께 일할 행동치료사 3명과 진료코디네이터 1명이다.

채용을 희망하는 자는 접수기간 내

에 이메일(momocss@hanmail.net)로 접수하면 된다. 채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홈페이지(www.jeonju.go.kr) 또는 전북대학교병원 홈페이지(www.cuh.co.kr)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앞서 전주시는 기존 사회복지시설과 특수학교 등에서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어려웠던 자해·공격 등 행동문제를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행동발달증진센터 유치를 협조했

으며, 유치 이후에는 지역 내 발달장애인 유관기관과의 연계체계를 마련하는 등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에 대한 예방 및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해왔다.

한편, 전북대학교병원(원장 조남천)은 지난 6월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선정돼 전북·전주 지역의 발달장애인들에게 특성과 욕구에 맞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의료지원이 가능해졌다.

/송효철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검찰 개혁은 국민의 요구”

조국 법무부장관, 법무·검찰개혁위 발족식 인사말에서

위원장에 김남준, '사법농단 의혹' 촉발 이탄희도 합류

조국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출범했다. 위원회는 법무·검찰 개혁방안을 논의해 장관에게 권고하게 된다. '조국 발(發) 검찰 개혁'이 본격적인 속도를 낼 전망이다.

법무부는 지난 30일 오후 2시에 정부 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발족식을 개최했다. 조 장관은 발족식에서 "국민들의 검찰 개혁에 대한 열망은 헌정 역사상 가장 뜨겁다"며 "지난 토요일 수많은 국민이 검찰 개혁을 요구하며 광장에 모여 촛불을 들었다"고 운을 폈다. 이어 "국민들은 검찰 개혁을 요구하면서 이 나라의 주인이 누구인지 다시 묻고 있으며, 선택되지 않은 권력에 대한 견제를 요구하고 있다"며 "법무·검찰 개혁은 주권자인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다. 우리는 명령을 받들어 역사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 권력은 강력한 힘을 갖고 있으면서도, 제도적 통제 장치를 갖고 있지 않다"며 "그 누구도 함부로 되풀이할 수 없는 검찰 개혁 방안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마련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이울러 "특히 비압박적 조치로 신속히 실현 가능한 개혁 방안도 제안해 주길 바란다"며 "속도감 있게, 그리고 과감하게 제안해 달라"고 덧붙였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의식한 듯한 언급도 있었다. 조 장관은 "최근 책임, 소명, 소인, 이런 말들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말인지 깨닫고 있다"며 "개인적으로 견디기 어려운 약진속 속에서 매일매일 이를 악물고 출근하고 있다. 언제 어디까지지 모르지만 갈 수 있는 때까지, 최선을 다해 나아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시스

전주지법 '완전월급제 위반 택시업체, 과태료 부과는 정당'

전액 관리제(완전 월급제)를 시행하지 않은 택시업체들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정당하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전주지법 제3민사부(부장판사 오재성)는 전주지역 택시회사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사건에 대한 항고심에서 불처분 결정을 내린 1심 결정을 취소하고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전액 관리제의 입법 목적을 고려할 때 전액 관리제의 시행 여부 가 노사 자율의 영역에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입금명세서에 전액 관리제의 규정만을 두고 시행을 회피, 사실상 사문화하는 행위를 제재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뉴시스

법죄신고 112 화제신고 119